



제목	Superstition as Ideology in Iranian Politics: From Majlesi to Ahmadinejad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Cambridge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11. 6. 13.
저자	Ali Rahnama
출판국가	영국
페이지수	334
ISBN 또는 ISSN	978-0521182218

내용 요약

이 책은 정치적 미신을 사용하는 사례와 목적을 증명하고자 하는 글이다. 1부에는 정치가의 스타일과 정치적 표현의 양식에 관한 글들이 있다. 리더십의 양식의 사례로서 아마다네자드(Ahmadinejad),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, 이스마일 사파비(Esmail Safavi) 등 3명의 이란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였다.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신과 숨겨진 세계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. 특히 20세기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와 16세기 샤 이스마일 사파비의 정치적 미신을 비교하면서 국왕들은 꿈, 목소리, 의사소통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, 숨겨진 세계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. 이스마일 사파비의 군인들은 샤가 이맘 알리(Iman Ali)라고 확신한 것이 그 한 사례이다.

2부는 왜 그러한 비이성적이고 임의적인 정치적 주장들이 20~21세기에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글이다. 그 해답은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와 미신적인 믿음을 공유한다면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정치적 미신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. 가령 17세기의 이맘 마일레시(Mohammad Baqir Majlesi)의 종교-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민중이 타당한 결정을 할 능력이 없으므로 왕, 혹은 성직자의 지도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. 또 현대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 하메네이(Khameneh'i)는 '신성한 선물'이자 신이 임명한 신의 계승자이다.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. 이로써 이란인들은 종교적 미신에 굴복하여 하메네이를 신의 대리자로서 인정하였다.